

# “이제 그대의 끝없는 무명번뇌는 멀리 날아가 버렸네!”

## 보봉사 ②

2차 순례 길에서 야단법석 때마다 수불 스님 좌우에서 자리를 지켜온 두 분 도반스님을 소개할 때가 온 것 같다. 한 분은 철오 스님인데 가끔 수불 스님의 안경알을 정성스럽게 닦아주는 모습에서 스님의 진심이 드러나는 것 같아 인상적이었고, 또 한 분은 하루를 접고 숙소에 들었을 때 어김없이 따뜻한 차를 우리는 모습에서 도반 간의 우정을 느끼게 했던 법일 스님이다.

마조 대사 사리탑에서 전해지는 기운을 받아서인지 수불 스님은 신바람 나게 법문을 하신다. 앞뒤 자르고 아무 곳을 들어도 법문의 핵심이 그곳에 들어 있다. 선지(禪指)를 체득하고 설하기 때문에 회통하고 있지 않나 싶다.

“스님, 요즘 어떠십니까.”  
“일면불! 월면불!”

여전히 새소리는 귀를 맑히고 왕대나무 숲의 바람은 눈을 시원하게 씻는다. 법석의 자리가 더 없이 상쾌하다. 순례자 일행 모두 법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

“마조 스님께서 이쪽을 거닐면서 많은 말씀을 남겼고 돌아가실 즈음에 일면불 월면불 하는 얘기도 이쪽 장소에서 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조록)에 나오는 ‘일면불 월면불’의 공안은 이렇다. 당 정원 4년 정월에 마조 대사가 석문산에 올라 숲속을 거닐다가 허물어진 동굴을 보고서는 시자에게 말했다.

“다음 달 나의 육신이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마조 대사는 산에서 돌아와 곧 몸져누웠다. 원주가 와서 물었다.

“스님, 요즘 어떠하십니까.”  
이에 마조 대사가 말했다.  
“일면불(日面佛)! 월면불(月面佛)!”

일면불 월면불의 근거는 보리유지(菩提流支)가 번역한 <불설불명경(佛說佛名經)> 제7권에, ‘또 한 부처가 있는데, 이름은 승성(勝鬘)이라고 한다. 승성불의 수명은 백억 세에 이른다. 승선세존을 지나면 다시 한 부처가 나타나는데, 그 이름은 월면이다. 월면불의 수명은 하루 낮 하루 밤이다. 월면세존을 뒤로 하고 나아가면 다시 또 한 부처를 만나게 되는데, 일면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처이다. 일면불의 수명은 1800 세에 이른다’ 라고 나온다.

이를 참고로 ‘사람의 수명은 여러 가지다’ 정도로 이해되어 왔으나 마조 대사가 왜 하필이면 일면불 월면불을 말씀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내 나름대로 허물을 지어보자면 마조 대사의 가풍인 ‘평삼심이 도다’를 또 다르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짐작해 볼 뿐이다. 수불 스님은 스님 나름대로 선해(禪解)를 하신다.

“일면불 월면불 하는 소리에 골탕 먹은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여기 오면 혼날까 봐 혼백이라도 가까이 못 올 겁니다. 여러분은 일면불 월면불에 대해서 좀 아시겠습니까. 남들은 뭐 해와 달이라고도 하고 낮과 밤이니 하고 별 의미를 다 붙이지만 허망한 소리지요. 마조 스님이 그냥 밀도 끝도 없이 일면불 월면불 하고 얘기하신 겁니다. 부처 불자는 왜 불였는지 일면 월면 해도 그만일 건데.

마조 스님의 유적지에 와서 한때를 보낸다는 사실이 어찌 보면 무겁기도 해요. ‘평삼심이 도다’라는 마조 스님의 가풍을 우리가 잘 써야 하는데 스님

께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조 스님은 한두 마디 말로도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었고, 발길로도 깨닫게 해주었는데 말입니다.”

마조 대사의 발길질에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은 수로(水老)화상의 선화다. 수로가 마조 대사를 친견하고 난 뒤 물었다.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마조 대사가 말했다.  
“절부터 하라.”

이에 수로가 절을 하려고 하는데 마조 대사가 느닷없이 발길질로 걷어차다. 순간 수로는 문득 깨달았다. 수로는 법원에 겨워 손뼉을 치며 양전대소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참 멋지구나! 멋져! 백전(百戰)의 삼매(三昧), 일체의 묘의(妙義), 이 모두가 오로지 한 터럭 끝에 있어, 문득 그 근본을 뚜렷이 깨달을진저.”

수로는 마조 대사에게 절하고 물러나 대중에게 고했다.

“대사님께 한 번 차이고 나니 이렇게 웃음이 한이 없습니다.”

수로 화상에 대해서는 후지에서 살았고 마조 대사의 제자로 알려져 있을 뿐 생몰 연대는 미상이라고 한다. 아무튼 이 공안에서 묻는 사람에게 인정사정없이 치고 밀치는 임제의 가풍이 마조 대사로부터 비롯되었음이 느껴지는 선화다.

마조 대사는 한 마디 말로써도 많은 수행자들을 깨닫게 했으니 다음과 같은 선화도 선가에 많이 알려져 있다. 마조 대사는 건양의 불적령에서 잠시 머물다가 무주(강서성 임천현)의 서리산으로 옮겨 갔는데 그 무렵에 사냥꾼이었던 석공 혜장(石鞞 慧藏)을 만났다고 전해진다. (마조록)은 혜장이 마조 대사를 만나 제자가 되는 장면을 다음과 전하고 있다.

어느 날 혜장은 한 때의 사슴을 쫓다가 마조 대사가 주석하고 있는 암자에 이르러 되었다. 마침 혜장은 밖에 나와 있던 마조 대사와 마주쳤다. 그때 혜장이 물었다.

“혹시 사슴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사냥꾼입니다.”  
“화살을 잘 쏘겠구먼.”

“예.”  
“화살 한 대로 몇 마리씩 잡는가.”  
“한 마리요.”  
“신통치 않군.”  
“스님은 잘 쏘십니까.”  
“암, 잘 쏘지.”  
“한 번에 몇 마리씩 잡습니까.”  
“한 번에 떼거리 전부를 잡지.”

정작 이 말의 속뜻은 한 번에 짐승을 잡는다는 말이 아니라 대중의 마음을 단번에 꿰뚫어 굴복시킬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었을까. “이도 저도 다 생명이 있는 것들인데 한 떼씩 잡아도 되는 겁니까.”  
“그러한 것을 알면서 왜 그대 자신(무명번뇌)은 잡지 않는가.”  
“저 자신(무명번뇌)을 잡으려 해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대의 끝없는 무명번뇌는 멀리 날아가 버렸네!”

“이런 굼벵이 같으니라고!  
절은 해서 어디에 쓰려는가.”

혜장은 그 자리에서 화살을 쏘고 버렸다. 그리고는 스스로 머리를 깎고 마조 대사 밑으로 출가했다. 20세 때 대중 스님들에게 <열반경>을 강의할 정



경내를 비질하는 보봉사대중 스님.



마조 대사 사리탑 앞에서 인국선원 순례자들이 야단법석을 펴고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다.

도로 경에 밝았던 분주 무업(汾州 無業)선사도 마조 대사를 친견하고 난 뒤 대사의 한 마디에 비로소 깨닫게 된다. (마조록)을 요약해 옮겨본다.

무업이 마조 대사를 참방했다. 그의 풍채는 당당했고 목소리는 종소리같이 우렁쳤다. 마조 대사가 무업에게 말했다.

“당당한 불당(佛堂) 안에 부처가 없군.”  
그러자 무업이 무릎을 꿇어 절을 하고 말했다.  
“삼승(三乘)에 대한 공부는 대강 해 마쳤습니다. 그런데 선문에서는 즉심시불이라 한다는 얘기는 전부 들어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확실히 무슨 뜻인지는 아직 짐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마조 대사가 말했다.  
“아직 짐작도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그것이다. 그밖에 별 다른 것은 없다.”

“달마 대사가 이 땅에 와서 비밀히 전한 심인(心印)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별 사소한 일에 신경을 다 쓰느군.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하게!”

이에 무업이 법당 밖으로 나가려 했다. 그때 마조 대사가 그를 불렀다.  
“여보게!”

무업이 고개를 들었다. 순간 마조 대사가 한 마디를 던졌다.  
“이것이 무엇인가.”

마조 대사의 이 한 마디에 무업은 홀연히 깨달았다. 무업이 큰 절을 울리자 마조 대사가 불연소리로 말했다.

“이런 굼벵이 같으니라고! 절은 해서 어디에 쓰려는가.”

이후 무업은 절도사 등이 귀의해 왔으나 명리를 피하여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 머물렀고 목사 동숙전(董叔纏)의 간청으로 개원사로 돌아와 20여 년간 승속을 교화하였다고 한다. 그 사이에 현종의 부름을 두 번 받았으나 모두 거절하였고, 목종이 즉위하여 다시 불렀으나 응하지 않고 입적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많은 수행자를 깨닫게 한 마조 대사야말로 육조 정신의 계승자라고 수불 스님은 평한다.

“일찍이 육조 혜능 대사가 회양에게 ‘인도의 반야다라(般若多羅)가 예언한 바, 네 발 아래서 땅아지 한 마리나 나와 천하 사람들을 다 밟아 죽일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마조 스님이 나와 천하 사람들을 깨닫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지요. 이를 보면 당시 성행하던 도참설에 기대어 육조의 정신적 계승자가 마조 스님이 될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조록)을 강의한 지가 벌써 십 몇 년은 된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다면 훨씬 더 충실해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수불 스님은 <육조단경>과 <마조록>의 차이를 짚는다.

“(마조록)은 (육조단경)에 비해 변화가 극심해요. <육조단경>에 나오지 않는 변화가 (마조록)에 보이는 것을 보면 (마조록)이야말로 선종 어록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조록)을 보면 몸과 몸이 부딪치는 역동적인 느낌이 듭니다. 육조 스님은 육신보살로서 아주 위엄 있게 부처님 법을 또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었다면, 마조 스님은 단도직입하는 입장에서 그냥 바로 일러라 하는 식의 수단을 제시하곤 합니다. 그런 모습이 (마조록) 가운데 많이 나옵니다.”

수불 스님이 마지막으로 (마조록)에 나오는 ‘고승이 된 마조 스님이 60세쯤에 고향 땅에 갔다가 한 노파에게 ‘대단한 스님이 오시나 했더니 겨우 일화가 마씨네 강아지모구먼’ 하는 소리를 듣는 일화를 들려주었다. 일화를 듣는 동안만큼은 마조 대사가 옛 조사가 아닌 이웃집 아저씨 같은 인간적인 느낌이 든다.

순례자 일행은 선 채로 마조 대사 사리탑을 향해 삼배를 한다. 언제 또 다시 올지 모른다는 아쉬움을 일행 모두가 답답이로 달란다. (계속)

글=정찬주, 사진=유동영



since 1999  
**행복한 '다행' 아제 여행사**

다음검색 “아제여행사”  
☎ 02) 730-4008

선사들의 서릿발 화두기가 지금도 강하게 흐르는 옛 선사들의 선적지!!  
최고의 노하우 **아제아제바라아제 아제여행사!!!**

부탄을 제법 좋아하는 여행사  
**의밀리아 은둔왕국 부탄/다갈링 미역**

차의지방 다질링 - 파로 - 수도 팀푸 - 여왕궁 푸니카 - 파드마삼바바 수행동굴 탁산

출발: 6/9, 7/14, 8/18 (월, 목 출발가능)  
3,090,000 / 1인  
\* 홈페이지 및 문의: http://www.gjtour.co.kr/

초조달마대사

육조혜능선사

마조도일선사

백장회해선사

위산영우선사

양기방회선사

대혜종고선사

고병원요선사

무상선사

**대만공승제에 초대합니다.**

주요일정: 타이베이 - 공승제 - 불광사 - 자재기금회 - 타이베이  
행사일정: 2011년 8월 18일 ~ 22일 (4박 5일) - 1차  
2011년 8월 20일 ~ 24일 (4박 5일) - 2차  
\* 참가금: 1,190,000/1인 (기사 가이드 팀 40불 / 1인 불포함)

**중국 강오선종사찰 8일 (11분 선사)**

남의회암 / 마조선사 / 백장선사 / 대우선사 / 황벽선사 / 위산선사 / 양산선사석사선사 / 양기방회 / 석두회전 / 동산선사

출발: 6월 20일  
\* 참가금: 1,590,000원 ~ / 1인  
\* \* 풀야의 잣나무 (정찬주 작가) 증정

**상해 / 항주 / 무석 / 보타산 6일**

- 6월 3일 출발  
- 1,090,000원 / 1인

**지장보살 화현처 구화산 / 천하비경 황산**

- 5월 26일 (5일)  
- 1,090,000원 / 1인

**불탑의 나라 미얀마 (가사불사)**

>> 5월 22일~27일(6일)  
>>> 참가: 1,690,000원  
-100m 웨다곤대탑  
-탁발공양의 스님들

**밀라레파 파드마삼바바 아티샤 성인들의 이야기 티벳으로 떠나는순례**

great adventure!!

(리빙 / 아누역사)  
▶ 6월 14일 출발 - 1,790,000원  
▶ 7월 10일 출발 - 1,890,000원